

# 『도서구입청구건』을 통해 본 이왕직 도서관의 서적 구입

The Purchase of Publications in the Yiwangjik Library  
seen through *Book Purchase Demand Case*

이 혜 정 (Lee, Hye-jung)\*

## ◁ 목 차 ▷

- |                       |                  |
|-----------------------|------------------|
| 1. 서 론                | 4.1 조선본          |
| 2. 도서관 도서 구입 관련 목록    | 4.2 중국본          |
| 3. 『도서구입청구건』의 구성      | 4.3 일본본          |
| 4. 간행된 나라별로 살펴본 구입 도서 | 5. 결 론<br><참고문헌> |

## < 초 록 >

본 연구에서는 『도서구입청구건』의 내용을 통해서 이왕직 도서관에서 구입한 서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도서구입청구건』을 살펴보기에 앞서 궁내부와 이왕직, 규장각 등 왕실 도서관에서 같은 시기에 작성한 목록 중 구입과 관련된 자료를 살펴보고, 각 목록이 작성된 형식을 알아보았다. 일부 목록의 내용은 각각의 목록의 세부 내용과 서로 일치하는 양상을 살펴볼 수 있었다.

다음장에서는 『도서구입청구건』의 기안문과 별지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입안을 거쳐 도서관, 경리실의 결재를 얻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견적서의 내용을 통해서 납입자를 확인할 수 있었다. 용달업에 종사하는 인물이 납입하는 것이 대다수로 확인되지만, 구입하고자 하는 서적의 출판사 혹은 서적의 저자가 납입자의 역할을 맡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도서구입청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구입 서적을 조선본, 중국본, 일본본으로 나누고 주제별로 분류하여 3년간 이왕직 도서관으로 유입된 서적을 살펴보았다.

要語: 『圖書購入請求件』, 李王職 圖書室, 『新購入書籍目錄』, 『新購入及寄附圖書目錄』, 『朝版財産目錄』, 『唐版財産目錄』, 『圖書假目錄』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고문헌관리학과 박사과정(esus00@hanmail.net)

접수일: 2012년 5월 25일 최초심사일: 2012년 9월 5일 심사완료일: 2012년 9월 15일

<ABSTRACT>

In the current research through the “book purchase demand case”(圖書購入請求件) content we tried to comprehend the publications purchased in the Yiwangjik library(李王職 圖書室). Before reviewing the “book purchase demand case”(圖書購入請求件), we examined the data related to the purchase among the list create in the same period in the royal library such as Yiwangjik(李王職), Gyujanggak(奎章閣) inside the palace, and reviewed the type created by each list. It can be examined that some list’s content show a condition that each list’s detail content concord each other.

In the next chapter, we examined the “book purchase demand case”(圖書購入請求件) of the draft document and content of the enclosure. We can verify that through the plan it acquires the approval from the library and accountancy room, and through the enclosure content we could verify the payer. It was verified that most of the payers were figures engaged in the delivery business, but we could also verify that the publisher of the publication that wishes to pay or the writer of the publication assuming the role of the payer.

Lastly, through the classification by theme we divided the purchase publication into Joseon, Chinese and Japanese copy known through the “book purchase demand case”(圖書購入請求件) and examined the publications introduced to the Yiwangjik library(李王職 圖書室) during 3 years.

Key words: *Book Purchase Demand Case*, Yiwangjik library,  
*Singuip-seojuk-mokrok*, *Singuip-gup-gibu-doseo-mokrok*,  
*Jopan-jaisan-mokrok*, *Dangpan-jaisan-mokrok*, *Doseogamokrok*

## 1. 서론

대한제국이 일본에 합병되면서 1910년 10월 조선총독부의 관제를 개편하고 일본은 황제였던 순종을 ‘李王’으로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12월에 이왕가와 관련된 사무를 담당하는 기구인 이왕직을 개설하여 종래 황실 사무를 담당했던 궁내부의 업무는 모두 이왕직으로 이관하게 되었다. 이러한 관제 개편에 따라 서무계에서는 도서의 보관, 관리와 관계된 일을 담당하게 되었다.<sup>1)</sup> 서무계에서 도서의 보관과 관리 이외에도 도서를 구입한 사실도 확인되는데, 이 때 작성한 자료가 바로 「도서구입청구건」<sup>2)</sup>으로, 이 시기에 작성된 여러 문건 중에서도 도서 구입 방식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도서구입청구건」은 이왕직 도서실이 옛 선원전 자리로 옮겨진 후에 구입한 서적을 기록하고 있는 자료로서 1911~14년 사이에 작성한 도서 구입 관계 서류철이다. 이왕직 서무계에서 작성한 도서 구입 기안문과 납입자가 작성한 견적서가 함께 수록되어 있다. 이 기록내용을 통해 이왕직 서무계의 업무가 체실도서의 보관과 출납에 관계된 일뿐만 아니라 도서의 구입도 담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당시 도서 구입과 관련된 직접적인 정보도 확인할 수 있으며, 한 기관에서 3년간 구입한 도서 내역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한 점 중 하나이다.

이왕직 서무계 도서실은 인정전 서쪽에 있는 지금의 春輝殿 자리에 설립되었다. 그 이전의 이왕직 도서실은 1910년 8월부터 1911년 6월까지 사간동(종로구)의 인수관을 사용하였는데, 그 자리에 경비 19,500원을 들여 1910년 4월에 착공하여 1911년 6월에 신축서고를 완공하였다. 신축서고에서 옛 선원전 자리로 도서실

1) 「純宗實錄[附錄]」, 2卷, 4年(1911) 2月 1日(陽曆) 3번째기사.

“(생략) 第二條, 庶務係에서는 左의 事務를 掌翫. 一, 贈答에 關한 事項. 二, 王家의 譜牒、詞章、古印及簿册類管守에 關한 事項. 三, 長官次官의 官印及職印管守에 關한 事項. 四, 宮規其他重要한 公文書의 起草及審査에 關한 事項. 五, 公文書類의 接受發送編纂保管及統計報告에 關한 事項. 六, 圖書의 保管出納及縱覽에 關한 事項. 七, 職員의 進退身分에 關한 事項. 八, 前各號의 外他係에 屬치아니한 事項.(생략)”

2) 「도서구입청구건」, 이왕직 편, 1911~1914년, 장서각 청구기호 K2-3140.

의 위치를 옮긴 것은 제실도서의 인계와 관련이 깊다. 고종의 제실도서관 설립 의지는 한일병합으로 인하여 무산되고 제실도서는 이왕직 도서관에서 관리하게 되었다. 그러나 1911년 6월에 신축서고와 도서일체를 취조국으로 인계해야 했기 때문에, 이왕직 도서관은 옛 선원전 자리로 옮겨지게 되었다.<sup>3)</sup>

「도서구입청구건」은 이왕직 도서관이 옛 선원전 자리로 옮겨진 후에 구입한 서적을 기록하고 있는 자료로, 이 시기에 작성된 여러 문건 중에서도 도서 구입 방식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이다. 도서의 구입과 관련된 문헌은 「도서구입청구건」 이외에도 규장각과 장서각에 도서 구입과 관련된 여러 건의 자료가 현존하고 있다. 다만 「도서구입청구건」 이외의 자료는 소장 목록의 형식으로 작성된 것으로 일부 항목을 통해서 입수된 사실을 간략히 알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우선 「도서구입청구건」을 살펴보기에 앞서 「도서구입청구건」이 작성될 즈음인 1910년을 전후한 시기에 작성된 목록 중 6건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6건의 목록은 모두 「도서구입청구건」과 같은 시기인 1910년을 전후한 시기에 작성되었고 몇 건의 경우 동일기관에서 작성되어 도서의 상황을 연이어 볼 수 있다. 규장각과 총독부에서 작성한 목록을 통하여 같은 시기에 이왕직 도서관 외의 기관에서도 도서의 구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구입된 서적을 목록의 형태로 남겼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sup>4)</sup> 다음으로 「도서구입청구건」의 견적서에 기록된 구입 서적을 살펴보기에 앞서 「도서구입청구건」에 수록된 기안문의 형식과 결재자, 납입자에 관한 부분을 분석한 후, 「도서구입청구건」의 별지에 기재된 구입서적을 조선본·중국본·일본본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서 「도서구입청구건」이라는 문헌 자체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더불어 그 문헌에 수록된 구입 서적을 알아봄으로써 이 시기에 이왕직 도서관에서 어떠한 서적을 구입하였고 구입과정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

3) 천혜봉, 「藏書閣의 歷史와 資料의 特性」, (성남: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6), 24-34.  
4) 「도서구입청구건」과 1910년을 전후하여 작성된 목록 6건에 대한 논문은 현재 이해정의 석사논문 “장서각 소장 일본 고서의 서지적 분석”의 제 2장과 「왕실도서해제」 등의 해제만이 있을 뿐이다. 이해정의 논문에서도 일본본이 수록되어 있는 목록을 위주로 살펴보았기 때문에 「도서구입청구건」 등의 목록을 분석한 것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도서구입청구건」을 통해 본 이왕직 도서실의 서적 구입

보고자 한다.

## 2. 도서실 도서 구입 관련 목록

조선시대 왕실 도서실에서 소장하고 있던 자료의 목록은 현재 여러 건 남아있다. 시기별로 작성된 목록의 변동을 통하여 새로 구입한 서적과 소실된 서적 등을 판단할 수 있는데, 간혹 목록의 한 부분에 소장경위 등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우선 이 장에서는 「도서구입청구건」을 살펴보기 전에 1910년 전후에 작성된 문헌 중 도서의 구입과 관련된 목록을 간략하게나마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 <표 1>의 목록 6건은 궁내부와 규장각, 이왕직 등에서 작성한 목록으로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기에 작성된 것이다. 왕실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관리하던 기관에서 작성한 목록 중 구입과 관련된 사항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궁내부, 규장각, 이왕직 등 여러 기관에서 작성한 목록을 함께 살펴보는 것은 제실도서관의 설립 시도가 무산되고 난 후의 왕실의 도서 인계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고종은 규장각과 다른 몇몇 기관을 합쳐서 제실도서관을 설립하고자 우선 「제실도서목록」을 작성하였으나<sup>5)</sup> 한일병합으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는데, 제실도서로 명명된 서적은 1910년 이왕직 서무계 도서실에서 잠시 관리하다가 그 다음해 총독부 취조국으로 인계되었다. 그 후 이왕직의 요구에 따라 1911년 2월부터 6월 사이에 구입한 서적 3,528책과 진모과에서 관장했던 공문서와 서적 12,615책을 취조국에서 이왕직으로 인계하였다.<sup>6)</sup> 도서 인계로 인하여 일부 서적이 다른 기관으로 옮겨 가게 된 것을, 각기 다른 기관에서 같은 시기에 작성한 목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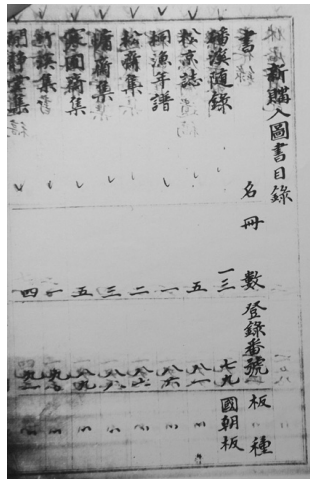
5) 서영희, “통감부 시기 일제의 권력장악과 규장각 자료의 정리,” 『규장각』 17(1994), 109-110.

6) 『純宗實錄[附錄]』, 2卷, 4年(1911) 6月 19日(陽曆) 2번째기사.

“前奎章閣所管圖書一切, 引繼于取調局。而自本年二月至六月, 新購入書籍三千五百二十八冊, 又舊宮內府引受公文書並書籍一萬二千六百十五冊, 茂朱赤裳山史庫及璿源閣移來書籍四千六十六冊, 並藏于圖書館。”

<표 1> 도서 구입 관련 목록

	서명	편저자	간사년도	책수	소장기관/ 청구기호
1	新購入書籍目錄	宮內府	[1894년~1910년]	1책(9장)	규장각 奎25269
2	新購入及寄附圖書目錄	奎章閣 圖書課	[1908년~1910년]	1책(8장)	규장각 古 017.1-Si61
3	朝版財産目錄	李王職 圖書室	[1910년~1914년]	1책(39장)	장서각 K2-4664
4	唐版財産目錄	李王職 圖書室	[1910년~1915년]	1책(49장)	장서각 K2-4639
5	新購入書籍目錄	朝鮮總督府	[1914년 이후]	1책(16장)	규장각 奎25265
6	圖書假目錄	李王職 圖書室	[1911년~1915년]	1책(29장)	장서각 K2-4642



<그림 1> 「신구입서적목록」

첫 번째 자료인 「新購入書籍目錄」은 宮內府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한 목록으로 서명, 책수, 등록번호, 판종 등 4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진 필사본 자료이다.

「도서구입청구건」을 통해 본 이왕직 도서실의 서적 구입

현재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로 규장각이 궁내부 소속이었을 당시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 목록에는 159부의 서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문집류와 역사서가 주를 이루고 있다. 판종란 아래에는 國朝板, 朝寫, 洋裝 등 3가지 판종이 기재되어 있다. 서명란의 위와 아래에 ‘V’표시가 있어서 장서 점검에도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자료를 통해 서명과 책수, 판종에 관한 단편적인 사실을 알 수 있지만 구입 시기와 서적의 가격, 납입자 등에 관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등록번호가 기입되어 있기는 하나 목록에 기재된 순서와 맞지 않으며, 번호도 섞여 있다.

두 번째 자료인 「新購入及寄附圖書目錄」은 규장각에서 새로 구입하거나 기증된 도서를 정리하여 작성한 목록으로 첫 장의 첫 줄에 ‘(別架)新購入及寄附圖書目錄’으로 기재되어 있다. 서명, 책수, 등록번호, 판종 4가지 항목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판종 란에는 ‘日本·朝·清·洋’이 나타난다. 일본본은 94부, 조선본은 58부, 중국본은 3부, 서양본은 2부로 총 157부가 실려 있다. 서양서는 「manual of practical bibliography」와 「classification and index」로 서명은 필기체로 쓰여 있다. 모두 서지와 관련된 서적으로, 서양의 도서 분류 등에 관한 것을 참고하기 위해 구입한 서적으로 추정된다. 등록번호는 1번부터 153번까지 목록에 기록된 순서대로 기입되어 있다.<sup>7)</sup> 목록의 순서는 서가에 배치된 순서 혹은 유입된 순서일 가능성이 있으며 목록을 작성한 후 등록번호가 부여된 것으로 보인다. 「帝國圖書館和漢書件名目錄第二編」을 시작으로 서적을 필사하고 있다. 「奎章閣圖書課藏書目錄」<sup>8)</sup>의 제 11책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서적을

7) 번호와 서적의 부수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日本書紀」, 「續日本記」, 「日本後記」, 「續日本後記」, 「文讀實錄」, 「三代實錄」 여섯 책에 68이라는 동일한 등록번호가 부여됐기 때문이다. 이해정, “장서각 소장 일본 고서의 서지적 분석,” (석사학위논문,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2011), 6-7.

8) 「奎章閣圖書課藏書目錄」, 奎章閣圖書課 編. 1895 以後, 11冊.  
第1冊. 唐板經部目錄. -- 第2冊. 朝板經部目錄. -- 第3冊. 唐板史部目錄. -- 第4冊. 朝板史部目錄. -- 第5冊. 唐板子部目錄. -- 第6冊. 朝板子部目錄. -- 第7冊. 唐板集部目錄. -- 第8冊. 朝板集部目錄. -- 第9冊. 別庫圖書目錄. -- 第10冊. 貴重圖書目錄. -- 第11冊. 新購入及寄附圖書目錄.

정리한 후에 새로 구입한 서적 목록을 작성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신구입급기부도서목록』에 기록된 서적은 대부분 규장각과 서울대 중앙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으나 그 중 사부에 속하는 일부 서적은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신구입급기부도서목록』에 나타나는 서적 중 장서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일부의 서적은 취조국에서 이왕직으로 인계되었던 책들일 것으로 추정된다. 장서각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해당 서적 중에는 ‘帝室圖書之章’이라는 장서인이 찍혀있어<sup>9)</sup> 제실도서로 편입된 도서였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sup>10)</sup>

세 번째 자료인 『朝版財産目録』은 1책 39장의 자료로 1910년 3월부터 1914년 5월까지 구입, 수증된 서적을 등록한 것이다. 도서명, 책수, 단가, 소계, 구입년월일, 적요 등 6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적요 란에는 기증받은 사실도 기록되어 있어, 문서실, 무주 사고, 경리실, 제의실 등에서 인계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네 번째 자료인 『唐版財産目録』은 1책 49장의 자료로 1910년 3월부터 1915년 2월 사이에 구입, 受贈 서적을 기록한 것이다. 구입한 시기별로 작성되어 있으며 도서명, 책수, 단가, 소계, 구입연월일, 摘要 등 6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기록하고 있어 언제 얼마의 가격으로 구입했는지 알 수 있다.

9) ‘제실도서지장’이 찍힌 31부의 서적은 다음과 같다.

일본사 관련 서적: 『大日本史』(J2-7), 『日本紀·續』(J2-10), 『日本後紀·續』(J2-12), 『日本三代實錄』(J2-14), 『日本文德天皇實錄』(J2-16), 『日本書紀』(J2-18), 『日本後紀』(J2-26), 『國史略』(J2-45), 『國史略』(J2-46), 『國史略』(J2-47), 『國史略』(J2-48), 『(德川)本朝通鑑』(J2-49), 『日本政記』(J2-63), 『古事記傳』(J2-83), 『野史』(J2-93), 『日本開化小史』(J2-95), 『日本外史』(J2-97), 『古史通』(J2-105), 『類聚國史(及):考異』(J2-60), 『皇朝史略(及)續』(J2-66), 『國史學要』(J2-42), 『國史紀事本末』(J2-71), 『國史箋論』(J2-156).  
중국사 관련 서적: 『璿臺譔元明史略』(J2-30), 『明朝紀事本末』(J2-67), 『立齋先生標題解註音釋 十八史略』(J2-76), 『支那史』(J2-79), 『清朝史略』(J2-80), 『史記評林』(J2-149), 『清三朝實錄採要』(J2-153), 『通鑑學要』(J2-40).

이혜정, 앞의 논문, 16.

10) 장서각에는 ‘帝室圖書之章’이 날인된 서적이 총 85건 검색된다. 조선본 53부, 중국본 2부, 일본본 30부이다. 『제실도서목록』을 살펴보면 조선본과 중국본으로 구별되어 작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목록의 내용과는 다르게 제실도서에 일본본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도서의 장서인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도서구입청구건」을 통해 본 이왕직 도서관의 서적 구입

「당판재산목록」은 구입연월일 순으로 목록이 작성되었는데, 목록의 첫 부분은 융희 4년 3월 5일부터 대정 3년 3월 31일까지의 자료가 실려 있고, 대정 3년 4월달부터 그 다음해 2월 5일까지는 ‘大正三年度唐版財産目錄’이라는 제목으로 새로운 면에 다시 기록하고 있다. ‘대정삼년도당판재산목록’의 다음 면에는 명치 44년 1월 31일부터 대정 3년 3월까지의 자료를 ‘法帖之部’라는 제목으로 기입하였으며, 4월 10일부터 대정 4년 2월 3일 사이에 구입된 서적은 ‘大正三年度法帖之部’라는 제목 하에 새로 작성하고 있다. 「당판재산목록」은 서명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중국본을 정리해 놓은 목록집으로, 간혹 중국본 사이에 일본본이 기재해 놓았는데, 해당 부분에 취소선을 긋고 적요란에 ‘日本版ニ付同部ニ移ス’라는 내용을 기록한 것이 보이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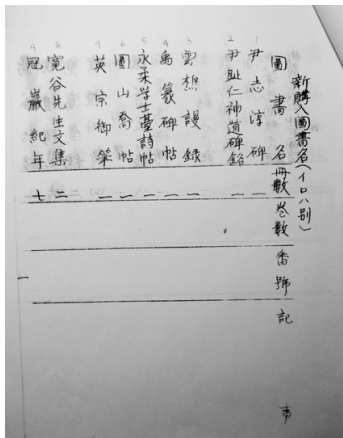
적요란에는 도서의 이동 뿐 아니라 개장 기록이 나타나기도 하여 도서의 이동과 상황을 알 수 있다. 「당판재산목록」의 제 16장에는 「三才圖會」 160책으로 기재되었으나 160책 위에 취소선을 긋고 그 옆에 ‘107책’으로 수정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적요란에는 ‘大正二年六月二十五日裝潢ノ際壹百七冊ニ合卷改裝ス’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기록을 통해서 원래 160책이었던 것을 107책으로 개장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책의 소개 란을 살펴보면 72원에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도서구입청구건」의 대정 1년 11월 11일 문서에도 「삼재도회」 160책을 72원에 구입하였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이외에 서명을 수정한 예도 찾아볼 수 있는데, 「당판재산목록」의 제 19장에 「靑門全藁」를 취소선을 긋고 그 옆에 「邵子湘全集」으로 기재하고 있다. 적요란에는 ‘書名誤記ニ付訂正 大正三年一月六日’이 적혀있어 서명을 1914년에 수정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서적의 구입 문서 또한 「도서구입청구건」에 있으며, 현재 장서각에서 「靑門全藁」가 아닌 「邵子湘全集」으로 관리하고 있다.

「당판재산목록」에는 구입서적뿐 아니라 다른 곳으로부터 인수받은 서적도 기록하고 있는데, 祭儀室로부터 「大明會通」을, 「通典」, 「文獻通考」를 박물관으로부터 「陶齋藏石記」 등을 인수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언제 인수받은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당판재산목록』과 『조판재산목록』의 기록은 『도서구입청구건』의 문서 내용과 일치하기 때문에 도서 구입과 관리의 측면에서 함께 살펴봐야 할 목록이다.

다섯 번째 자료인 『新購入書籍目錄』은 宮內府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한 목록으로 현재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이다. 규장각이 궁내부 소속이었을 당시에 작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 목록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모두 이로하(イロハ別)<sup>11)</sup>로 기록되어 있다고 쓰여 있다. 제 1회에는 총 146부의 서적이 필사되어 있으며, 도서명, 책수, 권수, 번호, 記事 등의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도서명과 책수만 기록하고 있다. 제 2회에는 218부의 서적이 필사되어 있다. 항목으로는 도서명, 책수, 권수, 번호, 판종, 기사 등이 있는데, ‘판종’이라는 항목이 새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여러 항목 중에서 도서명과 책수, 판종 기사 등을 기록하고 있는데, 판종으로는 版本과 寫本, 拓本으로 구분하고 있다. 記事에는 동일본이 몇 부인지 정도만 표기하고 있을 뿐 구입한 시기, 가격, 납입자에 대한 기록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림 2> 「신구입서적목록」

11) 이로하(イロハ別): 모든 가나의 문자에서 ‘ん’을 제외한 모든 문자를 한 번씩만 사용하여 만든 노래를 이로하(イロハ)歌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이 노래의 순서대로 가나의 순서를 매겼다.

「도서구입청구건」을 통해 본 이왕직 도서실의 서적 구입

여섯 번째 자료인 「圖書假目錄」은 이왕직 도서실에서 작성한 서적으로 표지에 明治 44年 5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구입한 자료가 두 번째 부분은 기증한 자료가 기재되어 있다. 첫 번째 부분인 구입 자료목록에는 도서명, 책수, 판종, 납입자씨명, 적요 등 5가지 항목으로 나뉘어 있으며, 납입자씨명 란에는 납입 날짜와 함께 이름이 기입되어 있다. 납입자씨명 란을 살펴보면 명치 44년 1월부터 8월 사이에 車景用, 吉田久助, 青木文七, 朴駿和 등의 사람들로부터 총 3,743책의 서적을 구입했는데, 판종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조선판은 90부 581책, 중국판은 186부 3,008책, 일본판은 6부 61책이 구입되었다.<sup>12)</sup> 두 번째 부분인 기증 자료목록은 첫 번째 부분과 형식은 같지만 납입자씨명을 기증자씨명으로, 적요를 적고로 바꾸는 등 항목명만 조금 변경되어 있다. 기증자씨명 란에는 단체명, 부서명 등이 적혀 있으며 날짜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도 많다. 대정 4년 8월 5일까지 기증된 것을 기록하고 있으며, 기증한 단체로는 조선고서간행회, 문서실, 경리실 등이 있다. 기증 이관 부분의 서적은 모두 양장본으로 나타난다. 이 목록은 1911년 1월부터 8월 사이에 구입한 서적을 알 수 있어 「도서구입청구건」이 작성되기 직전에 어떠한 서적이 들어왔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 3. 「도서구입청구건」의 구성

「도서구입청구건」은 이왕직 회의용지에 명치 44년 10월 25일부터 대정 3년 3월 30일까지 작성된 기안문과 별지를 모아서 엮은 것이다. 이왕직 도서실에서 올린 입안에 도서주임, 사무관, 경리주임 등이 결재 날인하였다. 간혹 장관과 차관이 결재 날인한 문서도 나타난다.

우선 「도서구입청구건」의 기안문 형식을 살펴보면, 회의 용지의 오른쪽은 기안년월일을 적는 란으로 ‘立案·淨書·分掌 校準 / 決裁·發送·分掌’의 6개 칸으

12) 천혜봉, 앞의 책, 33-34.

로 나뉘어 있으나 입안과 결재란에만 연월일이 기입되어 있다. 기안년월일의 왼쪽은 결재란으로 주로 도서실과 경리과의 주임과 사무관이 날인하고 있다. 결재는 크게 2부분으로 나뉠 수 있는데, 입안을 작성한 것으로 생각되는 도서실의 날인 부분과 서적구입 결재를 담당했을 것으로 생각되는 경리실의 날인부분이다. 다만 경리실의 결재는 대정 이후의 문서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결재 날인된 인장은 아래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리실의 날인을 살펴보면, 경리주임으로 嵯川이, 경리실 밑에는 清水와 在川, 片岡<sup>13)</sup>이 날인하고 있다.

도서실 측의 날인을 살펴보면, 도서주임이 없을 경우에는 不在라고 적거나 도서주임대리가 해당란에 날인하고 있다. 도서주임은 명치 44년 10월 25일 문서에 李會九로 나타나며 명치 45년 3월 1일과 6일, 5월 13일 문서에는 도서주임대리 金觀鎬가, 명치 45년 7월 4일부터 대정 2년 3월 5일까지는 도서주임 金觀鎬가 날인하고 있다. 대정 2년 4월 7일부터는 도서주임에 靑山이 도장을 날인하고 있는데, 8월 12일 이후의 문서에는 도서주임 대신 문서주임이라고 기록한 곳에 靑山이 날인하고 있다.<sup>14)</sup> 사무관 자리에는 金明秀의 도장이 있으며, 결재란 하단의 主任이라고 인쇄된 곳에는 相浦秀勵 혹은 市岡<sup>15)</sup>이 날인하고 있다. 圖書室主務에는 SAKAI와 関完植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데, 関完植의 도장은 대정 원년 12월 24일, 25일, 대정 2년 1월 16일에 작성된 3건의 문서에만 날인되어 있다.

대정 2년 7월 10일에는 장관 関丙奭, 차관 小宮三保松의 도장이 보인다. 별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납입자는 吉田九助로 총 5번(대정 2년 7월 3일, 6월 6일, 6월 13일, 6월 20일, 6월 27일)의 견적서로 65부의 서적을 2,076원에 판매하였다.

13) 「李王職職員案」(이왕직 편, 1911, 장서각 청구기호 K2-578)에서 살펴보면 會計係의 경리주임사무관에 嵯川新이, 屬에 在川武彦, 清水三作, 片岡雅衛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14) 「李王職職員案」(이왕직 편, 1911, 장서각 청구기호 K2-578)에서 살펴보면 庶務係의 문서주임사무관에 靑山淺治郎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15) 「李王職職員案」(이왕직 편, 1911, 장서각 청구기호 K2-578)에서 살펴보면 市岡은 庶務係의 도서주임사무관 밑의 屬에 千葉昌胤의 대리 市岡義之助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도서구입청구건」을 통해 본 이왕직 도서실의 서적 구입

<표 2> 「도서구입청구건」에 날인된 관계자 인장

						
장관 関内爽	차관 小宮三保松	도서실주무 関完植	도서실주무 SAKAI	사무관 金明秀	도서주임 金觀鎬	相浦秀勵
						
市岡義之助	도서주임 (문서주임) 青山淺治郎	경리실주무 蜷川新	경리실주무	在川武彦	清水三作	片岡雅衛

1911년에 작성된 「이왕직직원안」<sup>16)</sup>을 통해서 간략히 이왕직 서무계를 간략히 살펴보면, 이왕직에는 장관 민병섭, 차관 小宮三保松가 있으며, 그 직속으로 서무계, 회계계, 장시계, 장사계, 장원계가 있다. 그 중 서무계에는 문서주임 사무관과 사무관, 6명의 屬이 있고, 조사주임 사무관과 4명의 屬, 인사주임 사무관과 사무관, 4명의 屬, 도서주임 사무관과 사무관 6명의 속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계계에는 경리주임 사무관과 屬 11명, 영선주임 사무관과 기사, 속 3명, 기수 3명, 주전주임 사무관, 사무관, 속 3명, 기사주임 사무관과 속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도서구입청구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서무계의 문서주임 사무관, 도서주임 사무관, 도서주임의 아랫사람으로 사무관과 屬이 있으며, 회계계의 경리주임 사무관과 경리주임의 아랫사람에 속하는 속이 해당한다.

결재란 왼쪽으로는 件名이 나타나는데, ‘圖書購入ノ件・書籍購入ニ付伺・圖書豫約申込案’ 등이 있다. 대부분 도서 구입과 관련된 것이며 서적예약에 관한 것은 1912년 3월 1일 東京築地活版製造所에서 간행한 「古事類苑」을 구입할 때에만 나타난다. 「古事類苑」은 1896년부터 1914년 사이에 계속 발간된 자료로 앞으로 간행될 자료에 대해 미리 구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6) 「李王職職員案」, 이왕직 편, 1911, 장서각 청구기호 K2-578.

건명의 왼쪽으로는 본문이 있으며, 본문의 내용은 左記의 도서구입 가능여부를 묻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본문 끝에는 좌기의 형태로 구입하는 서적의 제목과 책수 등에 대한 간단한 기록과 납입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 좌기에 나타난 구입서적 목록은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고 있는데, 납입한 사람에 따라 별지의 모양이 조금씩 다르지만 서명, 판종, 가격이라는 서적의 정보와 납입한 사람의 이름과 주소 등이 공통적으로 나타나 간략하게나마 당시 어떠한 서적을 누구에게서 입수했는지 알 수 있다.

1~2부의 적은 양을 납입한 경우에는 견적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고 좌기의 항목에만 서적과 단가, 납입자 등을 적고 있다. 별지는 보통 한 번에 하나씩 올린 것으로 나타나는데, 여러 날에 걸쳐 견적서를 올렸거나 비슷한 시기에 서로 다른 사람이 견적서를 올려 동일한 날에 결재했을 경우에는 기안문에 여러 건의 별지가 첨부된다. 이 경우에는 좌기의 항목에서 별지 당 한 줄씩을 기록하고 있다.

견적서를 통해서 납입하려는 도서에 관한 정보와 그 도서를 납입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견적서에는 조선본과 중국본, 일본본 및 양장 등 여러 서적이 혼재되어 나타나는데, 견적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납입자를 중심으로 구분해보면 다음 <표 3>과 같다.

서적의 대부분을 吉田九助가 납부하고 있어 吉田九助와 관련된 유통의 흐름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吉田九助 외에도 金秉胄, 朴駿和, 青木文七 등이 서적을 납입하고 있는데,<sup>17)</sup> 총 591부의 서적이 구입되었다. 중국본과 일본본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판종을 알 수 없는 51종의 서적에는 「옥편」, 「동과전집」, 사서오경, 서첩, 「叢攷」 등이 포함되어 있다.

견적서에는 판종, 저자, 시기 등에 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 서명과 책수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기 어렵다. 또한 동일 서명의 서적이 많아 현재 소장하고 있는 서적과의 대조가 불가능한 것이 많다.

양장본 5부는 「支那人名辭書」(1책, 8원), 「大日本人名辭書」(1책, 150원), 「國史大系」(17책, 350원), 「續國史大系」(15책, 450원), 「事實文編」(5책, 8원 50전)

17) 이혜정, 앞의 논문, 8.

「도서구입청구건」을 통해 본 이왕직 도서실의 서적 구입

으로 모두 일본에서 20세기 초에 간행된 서적이다. 일본에서 간행된 서적일지라도 서양식으로 제본하여 판매하는 책은 ‘洋’이라고 별도로 표기하여 구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표 3> 납입자별 판종 구분

	중국본	일본본	조선본	양장본	알 수 없음	총합
吉田九助	156	203	1	5	42	407
朴駿和	80		11		1	92
金秉胄	30	2	24		1	57
青木文七	7	10			7	24
李範九	1					1
日本赤十字社發達史發行所		2				2
岡村乙丸		2				2
田中正剛		1				1
南雲榮八郎		1				1
東京築地活版製造所		1				1
陰山義三郎		1				1
帝國實業學會		1				1
佐藤九十			1			1
南以■ <sup>18)</sup>					1	1
총합	274	223	37	5	51	591

\*단위(부)

납입자에 관한 기록은 견적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 외에는 찾기 어렵다. 그 중 吉田九助는 「紳士明鑑」 등에 나타나는데, 그 기록에 따르면 1908년에 조선으로 건너와 李王職 및 각 公家와 諸官衙를 상대로 請負用達業에 종사하던 사람이다.<sup>19)</sup> 金秉胄, 朴駿和도 자세한 기록은 찾을 수 없었으나 「도서가목록」, 「圖書出納部」<sup>20)</sup> 등에 납입자명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이왕직 및 각 기관을 상대로

18) 판독할 수 없는 글자를 ■로 표시하였다.

19) 角田廣司 編著, 「(在朝鮮內地人)紳士明鑑」(京城: 朝鮮公論社, 1917), 1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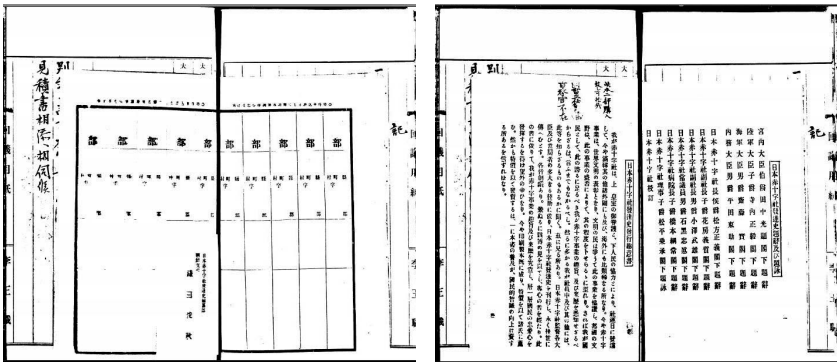
1882년 8월 1일에 群馬縣에서 아버지 吉田定七과 어머니 吉田きよ 사이에서 태어났다.

20) 「圖書出納部」, 李王家 篇, 1922~1924년, 1冊, 장서각 청구기호 K2-4962.

물품을 납입했던 사람으로 판단된다.

용달업에 종사하는 중개인 외에 판매 서적과 관련 있는 사람이 납입하는 경우도 있다. 비록 적은 수의 책을 납부했으나 다음의 납입자는 자신이 속한 단체 혹은 저자 본인이 직접 그 책을 납입한 것으로 출판 서적과 관계된 인물이 이왕직에 납입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명치 44년 10월 25일 입안에 陰山義三郎이 『大日本偉觀』 15부를 450원에 납입하고 있다. 陰山義三郎은 帝國興文協會의 編輯主事로 『大日本偉觀』은 1912년 帝國興文協會에서 간행된 책이다. 기안문은 1911년 10월에 작성된 것으로 帝國興文協會에서 책이 발간되기 이전에 도서실로 납입 신청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대정 원년 8월 14일 입안을 살펴보면 日本赤十字社發達史發行所에서 『日本赤十字社發達史』 1책을 2부 납입하는데, 아래의 <그림 3>과 같은 日本赤十字社發達史發行趣意書を 별지에 첨부하고 있다. 당시에 간행한 『日本赤十字社發達史』의 취지와 내용, 목차 등을 소개하고 도서의 구입 신청방법과 함께 신청서를 동봉하고 있다. 한 부의 가격은 2원 50전으로 도서실에서는 총 2부를 5원에 구입했다.



<그림 3> 日本赤十字社發達史發行趣意書

8월 28일 입안을 살펴보면 朝鮮圖書啓發社主事兼外務員인 南雲榮八郎이 1911년 公德會에서 간행한 平井義男의 『聖恩』을 3원 60전에 납입하고 있으며,

「도서구입청구건」을 통해 본 이왕직 도서실의 서적 구입

10월 21일 입안을 살펴보면 岡村乙丸은 皇典講究所 所屬國冕館員으로 皇典講究所에서 편찬한 <宮中三殿并三大祭典御岡> 4매와 1911년에 간행한 『宮中三殿並に祝祭日解説』 1책을 납입한 사람으로 나타난다.

대정 2년 8월 20일 입안에는 田中正剛이 朝鮮紳士寶鑑編輯主幹으로 『朝鮮紳士寶鑑』 10책을 50원에 납입한다. 『朝鮮紳士寶鑑』은 田中正剛이 1912년에 조선출판협회에서 출판한 것으로 당시 간행한 자신의 책을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

11월 18일 입안에는 帝國實業學會에서 1914년에 간행한 『(即位記念)皇室大典』 1책을 2원 95전에 납입하고 있다. 이 책도 간행 시기는 1914년인데 1913년에 납입하고 있는 기록이 나타난다.

## 4. 간행된 나라별로 살펴본 구입 도서

### 4.1 조선본

이왕직 도서실에서 구입한 조선본은 총 37부로 경부 2부, 사부 22부, 자부 1부, 집부 11부이다.<sup>21)</sup> 주로 사부와 집부에 속하는 책들로 사부는 필사본이 많다. 구입된 서적 중에는 호적대장도 포함되어 있는데, 대정 원년 12월 6일 吉田九助의 견적서를 살펴보면 ‘4원에 乾隆五十七年慶尙道英陽縣壬子式戶籍大帳 1책을 납입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 책은 현재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으며 ‘李王家圖書之章’ 외에 ‘英陽縣廳之印’, ‘茂朱赤裳山史庫所藏 朝鮮總督府寄贈本本’, ‘統首’가 날인되어 있다. 적상산사고에 소장되어 있던 서적이 외부로 유출 되었다가 이 시기에 중개인을 통해 이왕직 도서실로 유입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래의 <표 4>는 도서실에서 구입한 조선본을 부별로 구분해 놓은 것이다.

21) 『隨錄』 12冊은 어떤 서적인지 알 수 없어 분류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구입한 서적 중에는 서명이 동일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표 4>에 분류된 서적의 수는 위의 구입 종수와 맞지 않을 수 있다. <표 5>, <표 6>도 동일하다.

경부는 총 2부로 9권 20전에, 사부는 총 22부로 156권 80전에, 자부는 『萬古際會圖像』 10책을 18권에, 집부 11부는 총 89권 50전에 구매하였다.

<표 4> 「도서구입청구건」에 기록된 구입 조선본

	類	書名
經部	易類	『周易四箋』
	小學類	『字典釋要』
史部	正史類	『漢書』
	編年類	『小華外史』, 『昭代紀年』
	雜史類	『甲乙錄』, 『丙子錄』, 『奮忠紆難錄』, 『懲愆錄』, 『青囊抄』
	傳記類	『國朝年代記』, 『東國名賢記錄』, 『東國名賢錄』, 『忠烈錄』, 『景賢錄』, 『百世錄』, 『百拙齋年譜』, 『霽峯年譜』
	系譜類	『號譜』
	政書類	『迂書』, 『增正交隣志』, 『慶尙道英陽縣壬子式戶籍大帳成冊』
	地理類	『一善誌』, 『大東輿地圖』
子部	藝術類	『萬古際會圖像』
集部	總集類	『正氣錄』
	別集類	『月沙先生集』, 『牧隱集』, 『四溟堂集』, 『象村集』, 『西涯集』, 『息庵先生遺稿』, 『於于集』, 『牛溪先生集』, 『遇伏先生文集』, 『霽峯集』

경부의 『周易四箋』은 정약용이 주희의 『周易本義』에 근거하여 주역의 4가지 법을 풀이한 것으로, 현존하는 필사본은 모두 戊辰本(1808)의 필사본이다. 구입한 서적은 12책 필사본으로 현존하는 서적에 비추어 봤을 때 24권 12책 필사본으로 생각된다. 현재 장서각에는 소장되어 있지 않다.

『字典釋要』는 지식영이 편찬한 근대 자전이다. 이 자전은 41년간 21차례에 걸쳐 발행되었는데, 초판 발간 이후 판본이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구입된 서명이 『字典釋要』로만 기록되어 몇 년도 판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사부와 집부의 서적을 살펴보면 대부분 조선의 역사와 인물에 관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조선 등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서적으로는 고려 말부터 조선 순조까지 우리나라와 중국의 외교관계의 전말을 기록한 『小華外史』, 조선시대 중국을 제외한 일본 등 우리나라 인접국들과의 외교 관계를 적은 『增正交隣志』, 조선 건국

「도서구입청구건」을 통해 본 이왕직 도서실의 서적 구입

초부터 숙종대까지의 史實을 수록한 「昭代紀年」, 조선 후기 노론·소론의 분립에 관련된 50여 명의 서간·상소·차자 등을 모아놓은 「甲乙錄」, 계축옥사에 연루된 東亮의 무고함을 해명한 「百世錄」 등이 있다.

임진왜란 등 전쟁과 관련된 서적으로는 병자호란 당시의 일기인 「丙子錄」, 승려 유정이 지은 임진왜란 때의 역사서 「奮忠紆難錄」, 유성룡이 임진왜란 동안에 겪은 사실을 기록한 「懲愆錄」, 임진왜란 때의 충의를 기록한 「忠烈錄」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중요 인물을 수록한 것으로는 「號譜」, 「東國名賢記錄」, 「東國名賢錄」과 60여 성씨의 本을 기록한 「國朝年代記」, 김굉필의 전기 및 저작집인 「景賢錄」, 선조 시기의 문신 韓應寅의 연보 「百拙齋年譜」, 선조 시기의 문신 高敬命의 연보 「霽峯年譜」, 조선시대에 관리에게 교훈이 될 만한 사실을 엮은 「靑彙抄」, 조선 후기의 실학자 유수원이 사회개혁안을 제시한 「迂書」, 영양현의 호적대장 경상도 선산의 「一善誌」, 「大東輿地圖」 등이 있다. 집부에 수록된 문집은 임진왜란 의병장으로 활동하다 순국한 고경명 부자의 문집인 「正氣錄」, 이정구의 「月沙先生集」, 유정의 「四溟堂集」, 신희의 「象村集」, 유성룡의 「西涯集」 등 대부분이 조선 중기 인물의 문집으로 이루어져 있다.

## 4.2 중국본

이왕직 도서실에서 구입한 중국본은 총 293부로 경부 59부, 사부 94부, 자부 79부, 집부 61부를 구입하였다. 부별로 살펴보면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도서구입청구건」에 기록된 구입 중국본

	類	書名
經部	總經類	「五經大全」, 「十三經註書」, 「十三經註疏」
	易類	「周易」, 「周易傳義」, 「周易函書約存」, 「易經鴻寶」, 「周易義海撮要」, 「易酌」, 「易注貫一」, 「易經朱註」, 「問心錄周易解」, 「古周易全書」, 「周易指」, 「河上易註」, 「周易本義通報」, 「周易本義附錄纂註」, 「周易啓蒙通釋」
	書類	「書傳」, 「欽定書經傳說彙纂」, 「步元六經書經」, 「尙書後案」
	詩類	「毛詩訂詁」, 「詩傳」, 「詩毛氏傳疏」, 「欽定詩經傳說彙纂」

	類	書名
	禮類	「五禮通考」
	四書類	「大學」,「大學或問」,「中庸」,「中庸或問」,「論語」,「孟子」
	小學類	「篆字彙」,「藝文備覽」,「說文解字」,「說文通檢」,「六書通」,「說文解字註」,「說文解字校錄」,「廣金石韻府」,「六書精蘊」,「說文解字義證」,「經籍纂詁」,「字彙」,「顧氏音樂五書」,「廣韻」,「爾雅翼」,「爾雅義疏」
史部	正史類	「五代史」,「北史」,「南齊書」,「晉書」,「唐書」,「宋書」,「魏書」,「南史」,「梁書」,「周書」,「陳書」,「明史」,「元史」,「元史」,「金史」
	編年類	「通鑑綱目」,「資治通鑑」,「續資治通鑑節要」
	記事本末類	「通鑑紀事本末」,「南疆譯史」,「通鑑紀事本末」,「三藩紀事本末」,「釋史」
	別史類	「彭文敬公集」
	雜史類	「明季北略」,「明季南略」
	史表類	「歷代帝王年表」
	傳記類	「宋元學安」,「復社姓氏錄」,「學統」,「國朝先正事略」,「宋名臣言行錄」,「翁氏家事略記」,「唐御史台精舍題名考」
	譜錄類	「曹氏墨林」,「陶齊古金錄」,「博古圖」,「欽定西清古鑑」
	政書類	「大清律纂」,「五學錄」,「續文獻通考鈔」,「欽定戶部則例」,「皇朝通典」,「皇朝通志」,「皇朝文獻通考」
	術數類	「陰陽五要奇書」,「河洛精蘊」,「皇極經世易知」,「太乙統宗寶鑑」,「卜筮正宗」
	金石類	「蘇米齋蘭亭考」,「金石萃編」,「匋齋藏石記」,「求古精舍金石圖」,「初榻寶漢齋」,「歐陽詢皇甫君碑」
	地理類	「大明一統志」,「方輿紀要簡覽」,「名山勝概記」,「宣和奉使高麗圖經」,「東京夢華錄」,「大清一統志」,「盛京通志」,「吉林通志」,「廣陵通典」,「水經注匯校」
	目錄類	「鐵琴銅劍樓藏書目錄」,「浙江採集遺書總錄」,「四庫全書提要」,「四庫全書總目」,「彙刻書目」,「古今書刻」,「鐵琴銅劍樓藏」,「持靜齋書目」,「海源閣藏書目」,「欽定天祿琳琅書目」
	子部	儒家類
道家類		「道書十二種」,「道言內外秘訣全書」
兵家類		「武編」
農家類		「欽定授時通考」,「農桑輯要」
醫家類		「政和經史證類本草」,「備急千金要方」
術數類		「陰陽五要奇書」,「河洛精蘊」,「皇極經世易知」,「太乙統宗寶鑑」,「卜筮正宗」
藝術類		「集古印譜」,「草字彙」,「陳希租筆帖」,「草字彙」,「晚香堂蘇帖」,「王氏書畫苑」,「宣和畫譜」,「書斷」,「佩文齋書畫譜」,「鏡壇」,「大唐三藏聖教錄」,「墨池編」,「御製盛京賦」
雜家類		「義門讀書記」,「新增格古要論」,「傳家寶」,「知不足齋叢書」,「墨子」,「同原錄」,「漢魏叢書」,「率祖堂叢書」,「昨非庵集」,「津逮秘書」,「諸家全書」,「遜世編」,「困學紀聞三箋」,「閒情偶寄」,「平津館叢書」,「檀几叢書」,「格古要論」,「郝氏

「도서구입청구건」을 통해 본 이왕직 도서실의 서적 구입

類	書名
	叢書, 「隨園三十種」, 「經史辨體」, 「龍威秘書」, 「經訓堂類書」, 「小石山房叢書」, 「藝海珠慶」
類書類	「潛確居類書」, 「王氏玉海」, 「三才圖會」, 「事言要玄」, 「分類字錦」, 「事物原會」, 「類腋」, 「淵鑑類函」, 「藝文類聚」, 「通俗編」, 「太平御覽」, 「詩林正宗」, 「故事黃眉」, 「事類統編」, 「佩文韻府」, 「唐類函」, 「詩學集成」, 「欽定古今圖書集成」
楚辭類	「楚辭集註」
總集類	「李杜詩通」, 「宋四六選」, 「元詩選癸集」, 「文選詩集旁註」, 「佩文齋詠物詩選」, 「瀛奎律髓刊誤」, 「東瀛詩選」, 「中州集」, 「名世文宗」, 「御選唐宋詩醇」, 「欽定全唐詩」
集部 別集類	「杜工部集」, 「滄溟先生集」, 「留青日札」, 「東坡全集 附詩選」, 「方正學先生遜志齋集」, 「靖節先生集」, 「杜詩註釋」, 「精華錄訓纂」, 「惜捕軒十種」, 「有正味齋集」, 「白沙集」, 「徐文長逸稿」, 「青門全藁」, 「板橋詩抄」, 「樊川詩集」, 「懷麓堂集」, 「六一集」, 「柳文」, 「南豐之集」, 「蒙齋集」, 「謙受堂集」, 「蠶尾續文」, 「白石焦真稿」, 「歸震川先生集」, 「東坡全集」, 「東坡全集 附詩集」, 「蘇文忠公詩合註」, 「昌黎詩集注」, 「陶淵明集」, 「吳詩集覽」, 「西林詩華」, 「牧齋詩註」, 「敬業堂詩集」, 「小腆紀年增攷」, 「吳梅村詩集箋注」, 「宋王忠文公文集」, 「續語堂四種」, 「王陽明全集」, 「陸象山全集」, 「王陽明全書」
詩文評類	「才子古文」, 「帶經堂詩話」
詞曲類	「詞學全書」
小說類	「笠翁傳奇十種」, 「水滸傳」

경부는 역류, 사서류, 소학류의 서적이 많으며, 59부를 939원 75전을 주고 구입하였다. 역류는 청대에 찬술된 주석서가 많다. 소학류를 살펴보면 훈고서에 속하는 「爾雅翼」, 「爾雅義疏」와 자서에 속하는 「篆字彙」, 「六書通」, 「藝文備覽」, 「說文解字」, 「說文通檢」, 「說文解字註」, 「說文解字校錄」, 「說文解字義證」, 「字彙」와 운서에 속하는 「廣金石韻府」, 「顧氏音樂五書」, 「廣韻」이 있다. 서적에 따라서 중복적으로 구입하는 경우도 많다. 사부는 94부를 2,320원 62전에 구매하였다. 정서류, 통감, 지리지, 금석류, 목록류 등에 해당하는 서적이 많다. 자부는 주로 예술류, 잡가류, 유서류에 속하는 서적이 많은데, 총서도 많이 보인다. 79부의 서적을 총 2,463원 25전에 구입하였다. 집부는 두보, 소동파 등의 시집이 많으며, 61부를 534원 99전에 구입하였다.

중국본 서적 중에 김정희의 인장이 날인 되어 있는 것도 2부 찾아볼 수 있는데,

『欽定四庫全書總目』과 『困學紀聞三箋』이다. 『欽定四庫全書總目』은 대정 2년 2월 22일에 朴駿和에게서, 『困學紀聞三箋』은 대정 2년 3월 5일에 金秉胄에게서 구입하였다. 조선에서 소장하고 있던 서적이 조선의 상인을 통해 도서실로 유입되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별집류의 『杜詩註釋』과 『蘇文忠公詩合註』에는 ‘李王家圖書之章’ 외에 ‘讀杜艸堂’이라는 장서인이 날인되어 있다. ‘讀杜艸堂’은 寺田望南의 도서인므로, 두보의 시를 좋아했던 寺田이 자신의 집을 <두보의 작품을 읽는 집>으로 칭하면서 부터 사용한 것이다. 그 장서인은 자신의 책뿐만 아니라 서점에 있는 건본서나 다른 사람에게 빌린 책에까지 날인되어 있어, 이 도장이 있다 하더라도 寺田望南이 소장했던 책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sup>22)</sup> 서적은 두보와 관련된 서적이며 인장이 찍혀있는 것으로 보아 寺田을 거쳐 거래된 고서로 추측할 수 있다.



<그림 4> 讀杜艸堂

### 4.3 일본본

일본본은 223부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며 경부 22부, 사부 48부, 자부 80부, 집부 41부를 구입되었다. 구입한 서적의 류별 분류는 다음 <표 6>과 동일하다.

22) “印記からわかる本の持ち主,” 『筑波大學附屬圖書館報』 26卷 3號(2000. 12), 7.

「도서구입청구건」을 통해 본 이왕직 도서실의 서적 구입

<표 6> 「도서구입청구건」에 기록된 구입 일본본

	類	書名
經部	易類	『(官版)周易本義附錄纂註』, 『周易精義』, 『易經索引』, 『古周易訂詁』, 『易學啓蒙圖說』, 『易學啓蒙』, 『周易本義辨證』
	詩類	『詩緝』, 『詩經說約』
	四書類	『四書輯疏』, 『論孟精義』, 『四書匯參』
	五經類	『(改正音訓)五經』
	小學類	『說文解字』, 『(和)爾雅』, 『新撰字鏡』, 『海藏韻略』, 『(增續大廣益會)玉篇大全』, 『(影宋鈔繪圖)爾雅』, 『(倭)玉篇』
史部	正史類	『大日本史』, 『(日本)書紀集解』, 『日本書紀』, 『日本書紀通證』, 『日本書紀纂疏』
	編年類	『扶桑略記』, 『東鑑』
	別史類	『校正古事記』, 『(先代)舊事(本)紀』, 『鎌倉史』, 『古語拾遺』, 『古語拾遺言餘鈔』, 『(校訂)古事記』, 『古史傳』, 『大越史記全書』
	雜史類	『貞觀政要』, 『日本赤十字社發達史』
	史表類	『史籍年表』, 『(新撰)東西年表』
	史評類	『古史通』
	傳記類	『名賢言行略』, 『德川(本朝)孝子傳』, 『日本春秋』, 『(新刻)古列女傳』, 『扶桑隱逸傳』, 『德川(本朝)遯史』, 『孝義錄』
	系譜類	『諸家大系圖』, 『諸家人物誌』, 『續諸家人物誌』, 『萬姓統譜』
	政書類	『法曹至要鈔』, 『儀式』, 『法曹至要妙』, 『北山抄』, 『延喜式考異』, 『儀式』
	金石類	『大唐王居士塼塔之銘』, 『司馬使君墓名』, 『崔敬邕墓名』
	地理類	『德川(本朝)神社考』, 『古風土記逸文』, 『(訂正)出雲風土記』, 『(標註)古風土記』, 『吳船錄』, 『入蜀記』, 『大明一統志』
	目錄類	『彙刻書目』, 『彙刻書目外集』
	子部	儒家類
農家類		『授時通考』
道家類		『莊子因』
釋家類		『俱舍論記』, 『俱舍論疏』, 『五燈會元』, 『(秘密曼荼羅)十住心論』, 『三教指歸註刪補』, 『日本洞上聯燈錄』, 『俱舍論世間品頌疏首注』, 『俱舍世間品鈔』, 『因明入正理論疏叙瑞源記』, 『(德川)(本朝)高僧傳』, 『佛學三書』, 『釋氏要覽』, 『開元釋教錄』, 『法苑珠林』, 『碧巖集抄』, 『佛祖歷代通載』, 『(首)楞嚴經疏抄』, 『阿刀羅帖』, 『貞元新定釋教目錄』, 『諸尊圖像鈔』, 『祖庭事苑』, 『楞伽(阿跋多羅寶)經參訂疏』, 『楞伽(阿跋多羅寶)經通義』, 『華嚴經疏演義鈔』,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圓通疏』,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合綴』, 『扶桑禪林僧寶傳』, 『禪林類聚』, 『性靈集序便蒙』, 『虛堂錄抄』, 『(嘉興府興聖禪寺)虛堂和尚語錄』, 『周易禪解神道契』

	類	書名
	藝術類	『集古十種』, 『朝陽閣字鑑』, 『史料大觀(扶桑名畫傳)』, 『同文通考』, 『草字彙』, 『支那畫家人名辭書』, 『日本美術畫家人名詳傳』, 『豊公遺寶圖略』, 『小山林堂書畫文房圖錄』, 『手鑑』, 『耳比磨利帖』, 『集古浪華帖』, 『艸露貫珠』, 『歷代名公畫譜』, 『北宋拓集王聖教序』, 『宋拓神龍本蘭亭敘』, 『澄清堂帖』, 『北宋拓皇甫明公碑』, 『宋拓羅池廟碑』, 『宋拓熹平石經』
	類書類	『古事類苑』, 『佩文韻府』, 『倭漢三才圖會』, 『太平御覽』
	雜家類	『拾芥抄』, 『皇朝金鑑』, 『墨子』, 『五雜俎』, 『鶴林玉露』, 『白虎通德論』, 『風俗通義』, 『劉子棠』
集部	總集類	『三體詩備考大成』, 『三體詩』, 『唐宋八家文讀本』, 『(點註) 唐宋八家文讀本』, 『三體詩詳解』, 『纂評精註 唐宋八大家文讀本』, 『增評 唐宋八家文讀本』, 『(纂評) 唐宋八家文讀本』, 『靖獻遺言』, 『三體詩絕句鈔』, 『今世名家文鈔』
	別集類	『林和靖(先生)詩集』, 『朱子文集』, 『菅家文章』, 『艸山集』, 『狂雲集』, 『羅山(林先生)文集』, 『杜詩集註』, 『山谷詩集』, 『山谷詩集註』, 『壯悔堂文集』, 『朱竹垞文粹』, 『韓文起』, 『王陽明全書』, 『鐵函心史』
	詩文評類	『文鏡秘府論』, 『史館茗話』
	詞曲類	『大祓詞後釋』, 『祝詞考』, 『祝詞辨蒙』, 『祝詞略解』, 『日本樂府』
	小說類	『虞初新志』, 『世說箋本』, 『皇明大儒 王陽明(先生)出身靖亂錄』, 『酉陽雜俎』, 『標註訓譯 水滸傳』

경부는 소학류에 속하는 서적과 함께 역류에 속하는 서적이 주로 구입되었다. 22부 225책을 1,910원에 구매하였다. 사부는 별사류, 전기류, 지리류를 중심으로 구입되었다. 일본사에 해당하는 서적은 주로 고대사에 포함되는 서적이 주를 이루고 있다. 모두 48부 672책을 4,977원에 구입하였다.

현재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는 서적 중에서 '帝室圖書之章'이 날인되어 있는 것은 85부이다. 이 85부 중 '도서구입청구건'에 서명이 동일한 경우는 일본서 사부의 정사류 『大日本史』<sup>23)</sup>와 사평류 『古史通』<sup>24)</sup>이 있다. 『大日本史』는 명치 45년 7월 4일에 『大日本史』 志類部 126책을 50원 40전에, 『古史通』은 대정 1년 8월 20일에 4책을 1원 20전에 구입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古史通』은 장서각에 J2-105와 155 두 본으로 확인되고 있어 어느 것인지는 판단하기는 쉽지 않으나 앞 장에서 언급한 『신구입급기부도서목록』에 『古史通』이 기록되어 있어 1910년

23) 『大日本史』, 226冊. 1906. 장서각 청구기호 J2-7.

24) 『古史通』, 4冊. 1872. 장서각 청구기호 J2-105.

「도서구입청구건」을 통해 본 이왕직 도서실의 서적 구입

이전 혹은 1912년에 들어온 「古史通」 중 한 권에 ‘帝室圖書之章’이 날인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大日本史」는 총 226책으로 1~35책은 本紀, 36~100책은 列傳, 101~177책은 志, 178~226책은 表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본기와 열전 100책은 「新購入及寄附圖書目錄」에 「大日本史」 100책으로 나타나며, 1912년 7월 4일에 지와 표 126책을 구입한 것으로 생각된다.<sup>25)</sup>

자부는 주로 석가류와 예술류를 위주로 구입하였다. 총 80부 1,295책을 13,134원 70전의 가격에 구매 하였다. 조선본과 중국본에서는 석가류 서적을 구매하고 있지 않은데 반해, 일본본에서는 석가류 서적을 35부 볼 수 있다.

집부는 주로 「唐宋八大家文讀本」과 「三體詩」를 위주로 구입하고 있으며, 왕양명과 관련된 서적도 눈에 띈다. 중국인이 저술한 서적을 중심으로 구입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총 41부 415책을 2,367원의 가격에 구입하였다.<sup>26)</sup>

## 5. 결 론

이상으로 본 논문에서는 「도서구입청구건」의 기안문과 별지의 정보를 통해서 이왕직 도서실에서 어떠한 서적을 구입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도서구입청구건」을 살펴보기에 앞서 「도서구입청구건」과 작성 시기를 같이하는 목록을 조사하였는데, 1910년을 전후하여 작성된 자료 중에서 도서의 구입과 관련된 자료를 선정하여 작성된 목록의 형식 등을 파악하였다. 그 중에서 일부 자료는 「도서구입청구건」에 보이는 자료와 세부 내용이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어 도서의 구입과 관리라는 측면을 살펴볼 수 있었다.

다음 장에서는 「도서구입청구건」에 수록된 기안문과 견적서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았다. 납입자가 도서실에 견적서를 보내고 도서실에서는 견적서를 바탕으로 입안을 작성하여 도서주임 등이 결재하는 일정한 체계가 있었음을 확인할

25) 이해정, 앞의 논문, 6, 15-16.

26) 이해정, 앞의 논문, 24-33.

수 있다. 기안문의 결재는 경리실, 도서실 등에서 담당하였는데, 大正 이후의 자료에서 경리실 측의 인물이 결재란에서 나타나지 않아 주로 도서실에서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일부 문건에 한하여 경리실, 문서실, 장관과 차관이 결재에 관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견적서에는 도서를 납부하는 납입자의 이름과 주소 등이 기록되어 있는데, 납입자 별로 납입한 서적을 조선, 중국, 일본 등으로 구분한 결과 중국본과 일본본을 주로 구입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왕직 도서실에 가장 많은 서적을 납입한 인물은 吉田九助로, 용달업에 종사하는 인물임이 확인된다. 그 외의 납입자로는 같은 용달업에 있는 사람, 서적의 출판사 혹은 서적의 저자가 납입자의 역할을 맡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장에서는 견적서 등에 기록되어 있는 서적을 조선본, 중국본, 일본본으로 나누고, 다시 부별로 분류하였다. 조선본은 37부, 중국본은 293부, 일본본은 223부의 서적을 확인할 수 있는데, 경부에서는 조선, 중국, 일본본 모두 역류와 소학류를 중심으로 구입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조선본 사부에서는 외교, 전쟁 등에 관련된 자료가 보이고, 중국본 사부에서는 정사류, 지리지, 금석문, 목록류 등에 속하는 서적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일본본에서는 일본의 고대사에 해당하는 서적이 주를 이루고 있다. 중국본 자부에서는 예술류, 잡가류, 유서류가 일본본에서는 석가류와 예술류를 위주로 구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본 집부는 조선시대 중기 문인의 문집 위주이며, 중국본 집부는 소동파와 두보 등의 시집이, 일본본 집부에서는 당송팔대가문독본과 삼체시를 위주로 구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 「도서구입청구건」을 통하여 3년간 이왕직 도서실에서 구입한 서적을 살펴보았다. 「도서구입청구건」은 도서의 구입과 관련된 내용만 확인할 수 있으므로 구입한 서적이 어떠한 형식으로 정리되고 이용되었는지 관리의 측면에서는 이야기하기 어렵다. 때문에 규장각과 장서각에 소장된 다른 목록과 연계하여 당시 구입된 서적을 어떻게 관리하고 유지해 왔는지를 좀 더 체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도서구입청구건」을 통해 본 이왕직 도서관의 서적 구입

## <참고문헌>

- 「唐版財産目錄」, 李王職 圖書室. 1910년~1915년. 1책. 장서각 청구기호 K2-4639.
- 「圖書假目錄」, 李王職 圖書室. 1911년~1915년. 1책. 장서각 청구기호 K2-4642.
- 「圖書購入請求件」, 李王職 編. 1911~1914년. 1책. 장서각 청구기호 K2-3140.
- 「圖書出納部」, 李王家 編. 1922~1924년. 1책. 장서각 청구기호 K2-4962.
- 「純宗實錄[附錄].
- 「新購入及寄附圖書目錄」, 奎章閣 圖書課. 1908년~1910년. 1책. 규장각 청구기호  
古 017.1-Si61.
- 「新購入書籍目錄」, 宮內府 編. 1894년~1910년. 1책. 규장각 청구기호 奎25269.
- 「新購入書籍目錄」, 朝鮮總督府 編. 1914년 이후. 1책. 규장각 청구기호 奎25265.
- 「李王職職員案」, 李王職 編. 1911. 1책. 장서각 청구기호 K2-578.
- 「朝版財産目錄」, 李王職 圖書室. 1910년~1914년. 1책. 장서각 청구기호 K2-4664.
- “印記からわかる本の持ち主.” 『筑波大學附屬圖書館報』 26卷 3號(2000. 12).  
서영희. “통감부 시기 일제의 권력장악과 규장각 자료의 정리.” 『규장각』 17(1994).  
99-117.
- 이혜정. “장서각 소장 일본 고서의 서지적 분석.” 석사학위논문.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2011.
- 角田廣司. 「(在朝鮮內地人)紳士明鑑」. 京城: 朝鮮公論社, 1917.
- 천혜봉. 「藏書閣의 歷史와 資料的 特性」. 성남: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6.

